

울산시 거주자의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Households' Needs of Leisure Facilities and Related Factors in Ulsan

양 세 화*
Yang, Sehw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useholds' needs of leisure facilities and identified the related factors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Ulsan. It was found that current leisure facilities in Ulsan were lacked in quantity even though the needs of households were very high. Additional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age of wife, education of wife, monthly income, and housing size were partially important factors in relation to the needs of various types of leisure facilities.

I. 서 론

산업혁명을 계기로 한 기술의 고도한 발전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물질적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여가시간의 양을 크게 증가시켰다. 서구선진자본주의 사회는 이미 1950년대부터 대중여가(mass leisure) 시대에 돌입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보다 30여년 늦은 오늘날 비로소 대

중여가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김종일, 1997), 여가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체계적인 여가정책과 계획, 여가자원과 시설의 균등한 이용기회, 여가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가 보다 확산될 것이다.

여가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갈래에 따라 그 정확한 의미규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심윤중(1997)은 여가 정의들의 최소공배수를 규명하는 작업에서 여가를 '자유시간을 자유스럽게 쓰는 행위'로 규정하고, 자유시간과 여가행위를 여가의 구성요

* 정회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전공 부교수, Ph.D.

본 논문은 1996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소로 보았으며, 김광득(1991)은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게 되는 시간'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오늘날 여가활동의 패턴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의 소극적이고 투기(鬪技)적인 여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여가로, 옥내지향적 여가에서 야외지향적 여가로, 보고 즐기는 여가에서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처럼 다양한 여가활동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여가공간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여가공간 및 시설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in Korea)>는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하게 해주는 척도로서 우리 사회의 13개 부문에 대해 질적 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중 한 부분인 '문화와 여가(Culture and Leisure)'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가생활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이 조사·분석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여가시설에는 공연시설(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지역문화 복지시설(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보급 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공공도서관, 공공 체육시설(간이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육상 경기장), 도시공원(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여가시설을 근린주거환경 중 어디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연숙(1989)은 '집합주거환경의 평가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근린주거환경을 교육시설, 의료시설, 금융시설, 교통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구매시설, 문화오락시설, 근린시설의 9개 유형으로 나누면서, 이중 문화오락 및 근린시설을 여가활동에 이용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목욕탕, 헬스 클럽, 수영장, 영화관, 테니스 코트, 녹지공간, 놀이터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영석(1992)은 근린생활시설을 상업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청소년 센터, 오락센터, 사회센터 등의 여가관련 시설들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고 있다.

김광득(1991)은 여가의 동기와 활동내용에 따라 여가행동을 스포츠 및 건강활동, 취미 및 교양활동, 오락 및 사교활동, 감상과 관람활동, 행락 및 관광활동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오찬욱(1997)은 김해지역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생활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시설을 스포츠 시설, 취미·교양시설, 감상·전시시설, 사교시설의 4가지로 유형분류하되 단, 행락 및 관광활동을 위한 시설은 거주자를 위한 여가시설 연구라는 측면에서 제외시켰다.

여가활동의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화에 따라 여가공간도 확대되고 있다. 박속희(1997)는 여가공간을 옥내와 옥외로 분류하고, 옥외도 주거지역 내, 교외(근교)지역, 특정지역의 3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도시주민들은 1-4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주거지역 내에서의 여가활동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시주민을 위한 여가시설은 입지가 유리한 곳에 들어서야 여가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가까운 근린환경 내에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시설들 중 여가시설 확충은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여가시설에 대한 울산시 거주자들의 필요성 인식정도와 관련변인을 조사하므로써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시의 근린환경 개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가시설의 확충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울산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여가시설의 현황을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둘째, 가족 구성원들의 여가시간, 여가활용방법,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므로써 여가생활의 실태를 분석하며,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가시설의 현재 이용여부, 필요성 인식정도 및 관련 변인을 규명하며, 끝으로 여가시설의 제 측면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조사연구의 2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문헌분석에서는 울산시에서 발표하는 <울산통계연보(1995)>에 수록된 여가시설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므로써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여가시설의 양적 변화와 구(區)별 비교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연구에서는 울산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생활 실태, 여가시설의 이용 실태 및 필요성 인식정도, 여가시설의 제 측면에 대한 만족정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오찬옥(1997)이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생활시설 이용실태와 요구'에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확정되었다. 조사대상 가구는 울산시의 4개구(區) 중 최근에 울산광역시에 편입된 울주구를 제외한 3개구에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3개동(洞)을 각각 선정한 후, 주택평수의 고른 표집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본조사 기간은 1996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주부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450부이며, 최종적으로 41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상관관계 등으로 분석되었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1. 울산시의 여가시설 현황

1995년 울산시에서 발행한 <울산통계연보>는 울산시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주택·건설, 운수 및 통신 등을 포함하는 15개 부문에 대한 양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시설과 관련된 통계는 '교육 및 문화' 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도서관, 공연장, 문화공간, 공공체육시설의 4개 시설에 대한 자료만이 포함되고 있다. 울산시 여가시설 현황에 대한 요약은 <표 1>과 같다.

1994년 현재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수는 4개이며, 좌석수는 4,179개, 장서수는 172,844이다. 100만명을 육박하는 울산광역시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좌석과 장서 모두 매우 부족하다.

공연장 시설은 총 9개인데, 93년도 14개에서 5개가 감소하였다. 구(區)별 보유현황은 중구 6개, 남구 1개, 동구 2개로 전체 시설의 3분의 2가 중구에 몰려있으며, 이들 9개 공연장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은 4,290명이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로 세분화되어 있다. 공연시설은 현재 16개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 중 11개는 영화관으로 대다수는 중구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반공연장 3개, 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이 각각 1개씩이다. 전시시설에는 미술관과 화랑을 조사하였는데 현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는 미술관은 한군데도 없으며, 화랑 8군데가 전시시설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복지시설에는 복지회관 2개, 청소년회관 1개가 있었다.

공공체육시설은 크게 경기장,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의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조사되어 있는데, 경기장에는 실내체육관 2개, 종합경기장 1개, 테니스장 3개, 사격장 1개 소가 집계되었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표 1> 울산시 여가시설 현황 (1993-1994)

	1993년	1994년	구(區)별		
			중구	남구	동구
공공도서관					
도서관수	3	4	-	-	-
좌석수	3,879	4,179	-	-	-
장서수	141,910	172,844	-	-	-
공연장					
시설수	14	9	6	1	2
수용인원	5,525	4,290	3,426	189	675
문화공간					
공연시설 - 종합공연장	1	1	-	1	-
일반공연장	3	3	1	1	1
소공연장	1	1	-	1	-
전시시설 - 영화관	15	11	10	1	-
미술관	-	-	-	-	-
지역문화 - 화랑	4	8	4	3	1
복지시설 - 시민회관	-	-	-	-	-
복지회관	1	2	1	1	-
청소년회관	1	1	1	-	-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 실내체육관	2	2	1	-	-
종합경기장	1	1	1	-	-
테니스장	3	3	1	-	-
수영장	-	-	-	-	-
사격장	1	1	-	-	-
등록체육 - 골프장	-	1	-	-	-
시 설 - 빙상장	1	1	-	-	-
종합체육시설	5	5	2	1	1
신 교 - 수영장	7	12	4	1	4
체육시설 - 체육도장	121	166	47	62	28
볼링장	14	23	4	9	8
테니스장	3	3	1	1	1
골프연습장	15	23	10	6	2
탁구장	44	37	10	16	9
롤러스케이팅장	4	4	1	2	1
체력단력장	31	36	16	14	5
미용체조장	49	47	21	14	8
당구장	446	493	152	204	90

자료 : 울산시, 「울산통계연보」, 1995.

* : 울주구 제외로 인한 차이.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 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등록체육시설에는 골프장과 빙상장이 각각 1개소씩, 그리고 5개의 종합체육시설이 전부이다. 이에 반해 신고체육시설에는 비교적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구장 492개와 체육도장 166개를 비롯하여, 미용체조장(47), 탁구장(37), 체력단련장(36), 볼링장(23), 골프연습장(23), 수영장(12), 롤러스케이팅장(4), 테니스장(3)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탁구장과 미용체조장을 제외하고는 매년 모두 비교적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區)별로는 남구에 가장 많은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중구, 동구, 울주구의 순이다.

2.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의 연령이 30대인 가구가 전체의 47.5%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9.9세였다. 만자녀의 연령은 약 60%가 12세 이하로 학령전기(32.6%) 및 초등학교기(27.4%)의 분포를 보였다. 가족수는 자녀를 가진 3-4인 가족이 조사대상 가구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가족수는 3.93명으로 1995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도시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3.3인보다 많은 편이다.

가장의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을 통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장의 비율이 90% 이상이었으며, 이중 50% 이상이 대졸이었다. 전체 가장의 약 70%가량은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24.1%,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24.6%, 200만원 이상이 51.3%의 분포를 보여 1995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477,828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소득계층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70.2%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1995년 현재 전국 자가율 53.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조사 가구중 23.9%는 분양면적 20평 미만, 28.5%는 20평대, 30.6%는 30평대, 17%는 40평대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분양면적은 28.9평이다.

3. 조사대상가구의 여가생활 실태

조사대상가구의 여가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 중 남편, 부인, 만자녀의 주중 및 주말의 평균 여가시간과 주요 여가활동방법을 조사하였다. 여가시간은 앞의 서론에서 제시한 김광득(1991)의 정의를 사용하였으며, 주중 및 주말의 평균여가시간은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기입하게 하고, 여가활동방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된 14가지 여가행위의 참여 여부를 가족구성원별로 표시하게 하여 파악하였다.

주말 평균 여가시간은 남편이 6.51시간, 부인이 6.10시간, 만자녀가 7.36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중의 평균 여가시간은 부인 4.35시간, 만자녀 4.20시간에 비해 남편은 그 절반을 겨우 넘는 2.5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들이 여가시간 즉 자유시간을 어떤 활동에 보내는지를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TV시청에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응답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편의 경우는 잠자기(46%)와 운동(42.8%)에 여가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부인은 쇼핑(57.9%)으로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인의 쇼핑 참여도는 TV시청에 참여하는 정도(62%)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친지 만나기, 독서 등이 부인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이었다. 만자녀의 경우는 TV시청 참여도(41.6%)는 남편이나 부인에 비해 높지 않았지만, 비디오 보기에 세 번

〈표 2〉 가족구성원의 주말·주중 여가시간

	주중	주말
남편	2:51	6:51
부인	4:35	6:10
말자녀	4:20	7:36

(단위: 시간:분)

〈표 3〉 가족구성원의 여가활용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남편	TV시청(73.2%)	잠자기(46.0%)	운동 (42.8%)
부인	TV시청(62.0%)	쇼핑 (57.9%)	친구/친지만남(39.4%)
말자녀	TV시청(41.6%)	독서 (35.0%)	비디오보기 (30.2%)

주) 제시된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가구(N=411)에 대한 비율임.

제로 높은 참여도(30.2%)를 보여 실제 약 70%정도가 TV앞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통계청(1996)이 제시한 교육·문화부문 통계지표에서 파악된 내용과 같다. 즉 우리 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시간에 쫓기며 산다고 호소하지만,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이나 잠을 자는데 쓰고 있어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 여가시설의 이용실태와 필요성 인식정도

여가시설은 김광득(1991)과 오찬욱(1997)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스포츠 시설, 취미·교양시설, 감상·전시시설, 사교시설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시설에는 5개 내지 8개의 구체적인 시설들을 포함시켜 그 이용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필요성 인식정도는 '필요없다'의 1점에서 '아주 필요하다'의 4점에 이르는 Likert 유형의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시설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여가시설 이용률은 제시된 각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없는

지 그 이용여부를 물어 측정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표 4>에 요약하였다.

수영장은 8개 스포츠시설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볼링장, 테니스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요성 인식정도에서도 수영장이 3.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조사대상가구들이 가장 필요한 스포츠시설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볼링장, 테니스, 탁구장, 헬스클럽 등에 대한 요구정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교양시설은 도서관, 컴퓨터 이용실, 학원, 집회/행사장,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중 문화센터의 이용률이 제일 높았으며(40.6%), 역시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실은 현재 이용률은 높지 않았지만 필요성 인식점수는 문화센터와 유사하게 높아 컴퓨터 사용의 증가에 따른 거주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문화회관은 8개 감상·전시시설 중 조사대상가구들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문화회관에

<표 4> 여가시설 이용실태와 필요성 인식정도

여가시설	이용률(%) ^{주)}	필요성인식정도 평균(S.D.)
스포츠시설		
탁구장	17.0	3.01(.67)
테니스장	18.0	3.08(.69)
볼링장	28.5	3.14(.66)
수영장	43.3	3.37(.68)
에어로빅장	12.9	2.96(.73)
헬스클럽	13.4	3.00(.74)
골프연습장	6.1	2.31(.90)
스쿼시장	2.7	2.69(.79)
취미·교양시설		
도서관	31.1	3.34(.56)
컴퓨터이용실	14.4	3.57(.68)
학원	21.7	3.22(.66)
집회/행사장	10.5	2.96(.75)
문화센터	40.6	3.62(.55)
감상·전시시설		
문화회관	43.1	3.50(.59)
소극장	18.7	3.10(.64)
공연장	13.1	3.06(.71)
야외공연장	8.8	3.02(.69)
미술관/전시장	19.2	3.18(.66)
박물관	13.6	3.18(.67)
과학관	11.9	3.28(.66)
동/식물원	19.2	3.29(.70)
사교시설		
놀이방	14.1	3.12(.76)
어린이회관	9.7	3.23(.72)
청소년회관	8.3	3.25(.65)
여성회관	24.1	3.49(.58)
노인회관	5.6	3.20(.66)
공원	33.6	3.61(.56)
유원지	21.9	3.29(.73)

주) 제시된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가구(N=411)에 대한 비율임.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감상·전시시설들은 스포츠시설 등의 다른 여가시설에 비해 현재 이용률은 비교적 낮았

지만 필요성 인식점수는 모두 3점을 넘어, 울산시 거주자들이 다양한 감상·전시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원을 포함한 사교시설 중에서는 공원, 여성회관, 유원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개 사교시설 각각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에서는 최저 3.12점(놀이방)에서 최고 3.61점(공원)의 분포를 보여 사교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대상가구의 필요성 인식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조사한 4개 유형의 여가시설 중 취미·교양시설의 필요성을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교시설, 감상·전시시설, 스포츠시설의 순이었다.

끝으로 현재 이용가능한 여가시설의 종류, 양, 질적 수준, 위치, 관리수준, 운영내용의 6개 측면에 대한 만족정도를 '아주 불만족한다'의 1점에서 '아주 만족한다'의 5점에 이르는 Likert 유형의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만족도 점수의 분포는 2.53에서 2.87에 이르는 고른 경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기존의 여가시설에 대해 그저 그렇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가시설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양(量) 즉 여가시설의 수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5. 여가시설 필요성 인식과 관련 변인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는 조사대상가구의 가정생활주기와 소득수준 및 주택평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오찬욱, 1997). 이에 본 연구는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취미교양시설, 감상·전시시설, 사교시설의 4개 유형의 여가시설과 조사대상가구의 특성간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주부의 연령, 주부의 학력, 가계월평균소득과 주택규모가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정생활주기를 파악하는 데는 가장과 주부의 연령, 가족수, 딸자녀 또는 막내자녀의 연령 등 여러 변인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인식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주부의 연령을 사용하였

다. 또한 주부의 학력이 가장의 학력 대신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의 하나로 사용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포츠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는 생활주기를 나타내는 주부의 연령과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스포츠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는 조사대상가구의 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주부의 학력, 가계월평균소득, 주택규모는 스포츠시설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주부의 학력은 8개 스포츠시설 모두와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스쿼시장은 가계월평균소득 및 주택규모와 유의적인 정적관계를 보여 월소득이 높고 큰 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 가구일수록 이러한 시설에 대해 그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였다. 즉, 스포츠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는 생활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미·교양시설 중 도서관은 주부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컴퓨터 이용실은 주부의 연령이 낮은 젊은 가구일수록 그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집회행사장과 문화센터의 필요성 인식정도가 높았고, 또한 문화센터는 주택규모와도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규모와 가계월평균소득은 미술관/전시장을 제외한 감상·전시시설 전반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부의 학력은 8개 감상·전시시설 모두에 대해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들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야외공연장, 미술관/전시장, 동/식물원은 주부의 연령이 낮은 가구일수록 그 필요성을 더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와 가정의 연령, 가정의 학력, 주택규모, 가계월평균소득과의 상관관계분석표^{주)}

여가시설 \ 관련변인	주부의 연령	주부의 학력	가계월평균소득	주택규모
<u>스포츠시설</u>				
탁구장	-	.10	-	-
테니스장	-	.14	-	-
볼링장	-	.10	-	-
수영장	-	.28	-	.13
에어로빅장	-	.17	-	-
헬스클럽	-	.18	.13	.20
골프연습장	-	.29	.25	.27
스쿼시장	-	.20	.13	.11
<u>취미·교양시설</u>				
도서관	-	.11	.11	-
컴퓨터이용실	-.13	-	-	-
학원	-	-	-	-
집회행사장	-	.11	-	-
문화센터	-	.13	-	.12
<u>감상·전시시설</u>				
문화회관	-	.13	-	-
소극장	-	.20	-	-
공연장	-	.18	-	-
야외공연장	-.12	.10	-	-
미술관/전시장	-.12	.25	.12	-
박물관	-	.14	-	-
과학관	-	.20	-	-
동/식물원	-.13	.14	-	-
<u>사교시설</u>				
놀이방	-.33	.18	-	-.17
어린이회관	-.30	.19	-	-
청소년회관	-	.11	-	-
여성회관	.12	-	-.12	-
노인회관	-	-	-	-
공원	-.12	-	-	-
유원지	-.18	-	-	-.20

주) $p \leq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만 제시.

주부의 연령은 늘어남, 어린이회관, 공원, 유원지와는 유의적인 부적관계를, 그리고 여성회관과는 정적관계를 보여, 이들 각 시설이 생활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늘어남, 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 인식하고 있었다. 가계월평균소득은 여성회관과의 부적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사교시설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규모는 늘어남 및 유원지와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가시설 각각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와 제시된 관련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비록 유의적이긴 하나 최저 .1에서 최고 .33의 낮은 값이 산출되었다. 이는 제시된 인구학적 또는 경제적 변인들 보다 여가시설의 필요성 인식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진 변인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울산시의 여가시설 현황을 살펴 보고, 울산시 거주가구의 여가생활 실태와 본 연구에서 분류한 4개 유형의 여가시설의 이용현황 및 그 필요성 인식정도와 관련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울산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산업기지로 개발됐기 때문에 시민생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단 뒷전에 밀려왔었다. 그 결과의 하나로 울산시가 집계한 1994년 현재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가시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로 세분화되는 문화공간의 경우는 매우 취약하여, 공연시설은 주로 영화관이 차지하였으며, 전시시설 중 미술관은 한군데도 없이, 화랑, 8군데가 고작인 실정이다. 이는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전국 6번째의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시의 위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대중여가 시대를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층대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부족하다. 실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결과에서도 조사대상가구의 감상·전시시설 등을 포함하는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는 매우 커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울산시 거주 가구들의 여가시간 활용도 다른 선행연구들이 조사한 타도시 거주가구들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이 잠자거나 TV시청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가구의 약 33%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그리고 절반이 넘는 54%정도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시설을 스포츠시설, 취미·교양시설, 감상·전시시설, 사교시설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가구들이 현재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시설은 스포츠시설이었으며, 특히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미·교양시설 중에서는 문화센터와 도서관을, 감상·전시시설 중에서는 문화회관을, 그리고 사교시설에서는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사교시설에 대한 현재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조사에서는 문화센터, 컴퓨터이용실, 도서관 등의 취미교양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감상·전시시설에서는 문화회관과 동/식물원, 과학관 등을, 사교시설에서는 공원과 여성회관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스포츠시설은 현재 이용률은 가장 높았으나, 그 필요성은 4가지 여가시설 중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시설에 비해 이미 확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가시설의 6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거나 불만

족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여가시설의 양(量)적 측면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와 이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는 조사대상가구의 주부의 연령, 주부의 학력, 가계월평균소득, 주택규모 등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스포츠시설은 주부의 연령보다는 주부의 학력이나 소득, 주택규모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인들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미·교양시설 중 도서관은 주부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컴퓨터이용실은 젊은 가구일수록, 집회행사장은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문화센터는 주부의 학력이 높고 큰 평수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그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였다. 감상·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욱 높은 필요성 인식점수를 보였으며, 야외공연장, 미술관/전시장, 동/식물원 등은 주부의 연령이 낮은 즉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그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였다. 사교시설은 주부의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데,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놀이방, 어린이회관, 공원, 유원지 등의 시설을, 그리고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회관과 같은 자아실현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교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이 인식하였다. 이밖에도 가계월평균소득과 여성회관과의 부적인 상관관계, 주택규모와 놀이방 및 유원지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규명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자료에 의한 울산광역시의 여가시설 현황은 양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울산시 거주자들의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

미·교양시설이나 감상·전시시설과 같은 문화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기존시설의 부족과 현재의 낮은 이용률에 비해 매우 높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현저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지적·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욕구, 즉 자기실현을 위한 욕구 성취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절실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가시설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둘째, 여가시설의 유형과 거주가구들의 특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이용률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포츠시설에 대한 요구는 가정생활주기보다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와 관련이 있었으며, 취미·교양시설이나 감상·전시시설은 경제적 여건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용희망 정도가 달랐다. 또한 감상·전시시설 중 전시장이나 동/식물원, 사교시설 중 놀이방, 공원, 어린이회관 등은 생활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여가시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필요한 여러 요인 중 공급예정지역 거주가구들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이 필요하다.

끝으로 여가시설과 관련된 미래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각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와 관련변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설정하여 그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고, 상관관계만을 규명하므로써, 그 구체적인 요구 집단을 규명하는데 미흡한 감이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시설계획안을 수립하는데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울산지역의 여가시설의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질적 수준 파악에 대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광득(1988). 한국의 여가시설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광득(1991). 현대여가론: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문화사.
- 3) 김시형, 정건채, 전경배(1992). 군민회관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8): 51-60.
- 4) 김종일(1997). 여가와 사회복지. 여가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서울: 집문당, 242-271.
- 5) 김창국, 김수린(1993). 도시노인의 여가환경구조를 중심으로-노인의 여가 환경 및 시설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1): 13-20.
- 6) 박숙희(1997). 여가활동과 공간확산. 여가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서울: 집문당, 387-401.
- 7) 심운중(1997). 여가의 개념과 유형 및 여가이론. 여가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서울: 집문당, 177-207.
- 8) 오찬옥(1997).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생활시설 이용실태와 요구. 한국주거학회지, 8(1), 13-22.
- 9) 울산시(1995). 울산통계연보.
- 10) 이연숙(1989). 집합주거환경의 평가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산학협동재단 연구비 수혜연구 보고서.
- 11) 이영석(1992). 주거환경계획. 서울: 대우출판사.
- 12) 정용선, 최수행(1990). 주부의 주거지역 특성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5-30.
- 13)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 14)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 구조 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15) 홍성희, 문숙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53-174.